

펄프몰드 성형기 국산화

제지플랜트 및 설비제작



◀ 신광섭
(주)동진기계 대표이사

한 분야를 30년을 고집하고 또 30년을 기약하는 장인기업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특히 기계산업에 있어 30년 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다른 기업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내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15세 때부터 현장에서 기술을 습득한 엔지니어가 1973년 부산에서 동진기계공업사(대표 신동술)를 설립하고 키워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플라스틱 압출기를 시작으로 기계제작에 나섰던 (주)동진기계(대표이사 신광섭)는 1978년 사옥을 확장이전하면서 본격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다.

한국중공업(주), 현대중공업(주), (주)포항제철 등 우수기업의 선박엔진부품, 제철설비, 선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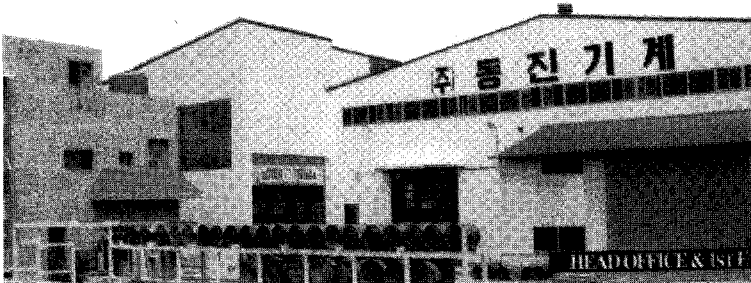
재, 주단강품을 가공 제작 협력업체로 등록하면서 기업을 견고히 다지게 된다.

1998년에는 ISO 9002 인증을 획득하고 다음해 벤처기업으로 지정, 우량기술기업 선정 등 꾸준한 연구 개발로 내실을 기하는 한편 제2공장을 확장해 유압사업부를 신설, 유압실린더 및 프레스를 제작하고 있다.

또한 제지설비 중견업체인 태광특수기계가 어려움을 겪자 이를 인수 합병해 제지플랜트 및 제지설비를 제작하기 시작하였고 지난해에는 PMP(Pulp Mold Package) 성형기를 개발해 포장기계 분야에도 진출하고 있다.

사실 동진기계는 설립자가 플라스틱압출기로 시작해 컵라면 원단 압출기 국산화, 진공성형기, 트리밍기 등을 개발하여 포장과의 인연은 초창기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진기계가 본격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1989년 신광섭 사장이 경영을 맡으면서 탄탄한 기반을 다지게 되면서 부터이다. 신 사장은 플라스틱업계의 시장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부흥의지를 갖고 지속적인 개발과 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며, 대기업 위주의 마케팅 전략을 펴 효과를 거두었고 이를 바탕으로 친환경적인 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지설비 사업과 펄프몰드



▲ (주)동진기계 회사전경

맞는 기계는 국내에서 개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 개발에 들어갔고 이런 가운데 펄프몰드설비 제작업체인 코리아리사이트가 어려워지자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안타까워하여 특허와 기술을 인수해 그동안 개발해오던 기술과 접목, 최신의 설비를 탄생시키게 됐다.

기계사업에 투자하여 개발에 나서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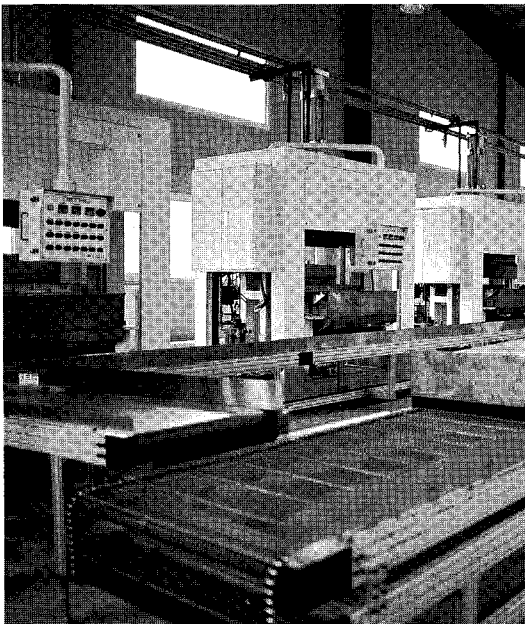
특히 펄프몰드 설비개발을 위해 2000년부터 국내 시장조사는 물론 중국시장을 파악하는 등 선진화된 기계에 대한 정보수집을 마쳤고 수입 판매하는 방법도 고려했다. 그러나 우리 실정에

아직은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지만 올해에는 완벽한 기계를 선보인다는 계획아래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진기계가 이렇게 환경과 관련된 설비에 투자하고 있는 것은 주변의 환경에 대한 바람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자연 본래 모습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내재되어 있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사업을 연계시킨 것이다.

기술보국, 고객만족, 가치창조의 경영 목표와 경영목표 달성, 품질시스템 생활화, 제반요건 준수의 품질방침, KSA-9002, ISO-9002, NSC-3800에 따른 품질시스템 확립, 이행, 유지, 적절한 자원확보, 유효적절한 공정수행으로 품질방침 달성의 품질 목표가 있기에 동진기계의 오늘과 내일이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가업을 이어 받아 더욱 발전시키고 기업이 이윤의 목적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도 고려한 경영으로 새롭게 펄프몰드 설비사업을 시작하는 동진기계에 희망을 걸어본다. ☐



▲ 동진기계가 개발한 펄프 몰드 설비

〈鎮〉